

영어발화에 나타난 타동사 통사구조 유지성*

박분주
경북대학교

Park, Boon-Joo. (2009). Syntactic persistence of transitive structure in English utterance. *Modern English Education*, 10(1), 207-223.

Syntactic persistence is defined as a phenomenon that the structure tends to be carried over to the next utter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yntactic persistence in first and second language speakers of English. Forty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and consisted of twenty English L1 speakers of English and twenty L2 speakers of English with Korean as their L1. The experimental paradigm involved repetition of an auditory stimulus, followed by picture description. The target structures were transitive alternate structures (active vs. passive). Overall, the effects of syntactic persistence were found in English transitive structure. The results showed that syntactic priming pattern was similar between English native speakers(L1) and second language speakers of English (L2). This study contributes to further universal accounts of syntactic persistence in language production theory. The pedagogical implication that this study might have is that syntactic structure might be learned inherently through exchanging utterances with native speaker of English.

[syntactic persistence/transitive structure/second language acquisition/
통사구조 유지성/타동사 구문/제 2 언어습득]

I. 서론

언어발화에 있어서 화자들은 어떤 통사구조를 포함한(예를 들어, 능동 또는 수동)문장을 듣거나 소리 내어서 읽고 난 후 다음에 이어지는 발화에 있어서 그 전 발화에 포함된 통사구조가 유지되어 다음 발화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을 통사구조 유지성(syntactic persistence)이라고 한다. 예를 들

*본 논문은 University of Arizona에 제출된 저자의 박사논문(Boon-Joo Park, 2007)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어, 만약 화자가 수동태 통사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듣거나 소리 내어서 읽었을 때, 다음 발화에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능동구문을 이용한 문장을 사용하는 대신에 수동구문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사구조의 유지성이 영어원어민 발화 뿐 만 아니라 영어와 어순이 다른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영어를 제 2언어로 구사하는 화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실험방법은 심리언어학적 실험환경을 도입한 Bock(1986)의 그림묘사하기(*picture description*)를 기본과업으로 이용하되, 컴퓨터 모니터화면으로 그림이 제시되는 방식으로 변환하였다. 문장을 듣고 따라하고 그림이 제시되면 그 그림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통하여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고 영어를 제 2언어 화자들의 발화에서도 모국어화자들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동일한 의미상에서 능동문과 수동문의 구조선택이 가능한 타동사 구문에서 통사구조 유지성이 보이는 지를 규명 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목할 사항은 제 2언어 화자들의 집단은 그들의 모국어가 한국어인 동질 집단(*homogeneous group*)을 실험집단으로 하여 제 2언어 발화를 분석한 점이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에서도 밝힌 바 있는 영어를 제1언어로 가지고 있는 화자들의 발화에서 통사구조 유지현상을 먼저 재규명하고, 더 나아가 한국어(제 1언어)와 영어(제 2언어)가 알파벳시스템, 어순, 격 표시 등에서 상이한 특징을 가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 언어를 각각 제1언어, 제 2언어로 가지는 이중화자들이 통사구조 유지성과 관련해서 영어 모국어화자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지 아닌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통사구조 유지성은 언어오류분석 연구나, 사회언어학적 연구에서나, 코퍼스 자료 뿐 만 아니라(Schlenker, 1980; Levelt & Kelter, 1982), 실험실환경에서 이루어진 심리언어학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Bock, 1986; Bock & Griffin, 2000; Branigan, Hartsuiker & Kolk, 1998a, 1998b; Pickering, Livensedge, Stewart, & Urbach, 1995; Pickering, Branigan, & McLean, 2002)

오류분석연구에서는 발화오류라 할지라도 그 발화의 통사구조가 원래 의도된 발화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통사구조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코퍼스자료를 통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Bock & Levelt, 1994; Garrett, 1980). 예를 들어 ‘Get out of *the car*’가 의도된 발화인데 ‘Get out of *the clark*’이라고 한 오류에서 *the car*과 *the clark*은 명사(Noun)라는 통사구조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Norman(1981)의 자료에서도 ‘I am a sheep in *the wolf's clothing*’이 의도된 발화인데 ‘I am a sheep in *the lamb's clothing*’의

오류발화에서도 그 오류는 같은 통사구조, 즉 명사구(Noun Phrase)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Levelt와 Kelter(1982)는 전화상으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으로 얻어진 발화를 분석하였다. 여러 상점에 전화를 걸어 아래 예문 (1)과 (2)에서처럼 의미는 같지만 통사구조가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질문을 던졌다. 즉 하나는 전치사구문을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명사구를 포함하는 질문 이었다.

- (1) 'What time does your shop close?'
- (2) 'At what time does your shop close?'

그 결과 첫 번째 형태, 즉 명사구를 포함한 질문에는 응답자가 'Five o'clock'이라고 명사구를 포함한 통사구조를 사용해서 대답하는 경향이 강하고, 두 번째 질문형태, 즉 전치사구를 포함하는 질문에는 'At five o'clock'과 같이 전치사구를 포함해서 대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연발화에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언어학적 연구나, 오류분석 자료와는 달리 심리언어학적 연구에서는 좀 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통제적인 실험실환경에서의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Bock(1986)과 그의 동료들은 기억력테스트를 가장한 그림묘사하기 방법을 이용해 통사구조 유지효과(syntactic persistence)를 밝혀왔다. 이 연구방법은 발화자들이 들었던 발화에서 사용된 통사구조가 발화자들이 그림묘사를 통해 문장을 만들 때, 무의식적으로 그 전에 들었던 통사구조가 그림묘사를 위한 문장을 만들 때 유지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므로 연구의도의 실험대상 통사구조가 피험자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Bock(1986)은 실험참가자들에게 실험의 목적이 기억력테스트라고 일러두고 사전 과업(pre-task)의 하나로 스테디 단계를 두었다. 이 단계에서 몇 개의 문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 피험자들에게 스테디 단계에 나왔던 문장이 본 실험에서 나오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묻는 기억력테스트 과정을 통해 피험자들이 만들어 내는 문장들의 통사구조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물론 스테디 과정에 제시된 문장들은 대상 통사구조(target structures)들이 아니라 삽입구조(fillers)에 해당하며 본 실험에서 반복되어서 피험자들로 하여금 앞에서 제시된 문장인지 아닌지 묻는 질문에 'YES'로 유도하는 문장들에 해당한다. 본 실험에서 실험대상 통사구조에 대해서 반복여부를 묻는 질문(recognition test)에 대답은 'NO' 이어야한다. 이 실험방법은 피험자들이 무의식적인 언어 과정(language processing)을 밝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 실험방법을 통해서

Bock(1986)은 같은 의미를 전달하면서 두 가지 통사구조의 선택이 가능한 타동사구조(transitive structure)와 여격동사구조(dative structure)를 실험대상 통사구조로 채택했다. 타동사구조는 능동태 구문(active structure)과 수동태 구문(passive structure)을 포함하고, 여격동사구조는 이중목적어 여격구문(double-object dative structure)과 전치사구 여격구문(prepositional dative structure)으로 선택적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타동사구문 발화에서 수동태구문을 듣고 그림묘사를 할 때 능동태보다 수동태를 사용한 빈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여격구문 발화에서도 전치사구를 포함한 여격구문을 듣고 그림묘사에서 이중목적어구문보다 전치사구문 여격구문을 사용한 빈도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두드러졌다는 것을 밝혔다.

더 나아가, Pickering과 Branigan(1998) 그리고 Pickering 등(2002)은 문장 완성하기 과업(sentence completion task)을 연구방법으로 택했다. Bock(1986)의 방법과 다른 점은 구두시험이 아니라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실험 참여자에게 제시문구(priming fragments)와 실험대상 문구(target fragments)로 이루어진 조각문(fragments)들이 담긴 책자를 나누어주어 실험참가자로 하여금 그 제시문구와 실험대상 문구를 완전한 문장으로 완성시키도록 하였다. 제시문구와 실험대상 문구의 예는 다음과 같다.

(3) 제시문구와 실험대상 문구(Prime and target fragments)

A. 제시문구 (Prime fragments)

- a. The racing driver gave the helpful mechanic...
- b. The racing driver gave the torn overall...

B. 실험대상 문구 (Target fragments)

The patient showed...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문구로 쓰인 조각문들은 이미 이중목적어 여격구문(*The racing driver gave the helpful mechanic...*) 인지, 전치사구 여격구문(*The racing driver gave the torn overall...*) 인지의 정보를 포함하는 문구들인 데 반해, 제시문구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3B)의 실험대상 조각문은 어떤 종류의 여격구문일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참가자가 결정해서 문장완성을 해야 한다. 이 실험에서도 제시문구에서 사용된 통사구조가 실험대상 조각문을 완성시키는데 사용되는 통사구조 유지경향이 나타났다. 제시문구에 사용된 통사구조가 이어서 제시되는 실험대상 구문완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제시문구에 이중목적어 여격구조가 사용되었다면 실험대상 문구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시킬 때 전치사 구문 여격구조보다는 이중목적어 여격구조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두드러진 결과였다. 이 연구가 가지는 또 한 가지 괄목할 사항은 문장 만들기 과업으로 쓰기 형식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그림묘사를 이용한 구두테스트에서 발견된 비슷한 통사구조 유지효과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몇몇 학자들은 이런 통사구조 유지성이 내재적 학습의 한 기제로 간주한다 (Bock & Griffin, 2000; Branigan, 2007).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몇몇 통사구조 유지성에 관련된 연구에서도 이런 제시문구가 언어습득 상에서 입력(input)의 효과를 발휘하여 언어습득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Huttenlocher, Vasilyeva, & Shimpi, 2004; Savage, Leiven, Theakton, & Tomasello, 2003, 2006). 특히 Huttenlocher 등(2004)은 4.5세에서 5.8세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통사구조 유지성 실험을 했다. 대상 통사구조는 타동사구문과 여격동사구문을 사용하였다. 세 가지 실험을 하였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제시 단계(priming trial)에서 제시된 그림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실험대상 아동들이 실험자가 그림설명을 하면 듣고 따라하고 다음 목표 단계(target trial)에서는 아이들이 바로 실험대상그림을 묘사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제시 단계에서 제시문장들(priming sentences)이 주어지고 대신 소리 내어 따라 하지는 않고 바로 목표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을 한 문장으로 묘사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타동사구문-여격동사구문 순서로 테스트를 하고 다른 그룹은 순서를 바꿔서 여격동사구문-타동사구문 순서로 테스트를 하였다. 세 가지 실험에서 모두 통사구조 유지성이 나타났으며, 주목할만한 점은 실험참가자들이 제시문장을 듣고 따라하든 따라하지 않든 통사구조 유지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어서 Savage 등(2006)이 한 실험에서는 한 그룹을 통제그룹으로 두고 두 개의 실험그룹을 두었는데 통제그룹을 제시문구를 전혀 받지 않고, 한 실험그룹은 동일한 문장으로 구성된 다섯 개의 제시문구를 받고 다른 실험그룹은 모두 통사구조는 같으나 다른 문장들로 구성된 다섯 개의 제시문구를 받았다. 이들은 또 학습효과가 있는지 보기위해 세 번에 걸쳐 같은 실험을 했다. 시간 간격은 두 번째 실험은 일주일 후, 세 번째 실험은 한 달 후에 이루어졌으며 실험대상 그림은 다른 그림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사구조 유지효과는 시간이 거듭되어도 지속되었고, 다섯 개의 동일한 제시문구를 사용한 첫 번째 실험보다도 오히려 통사구조는 같으나 다섯 개의 상이한 문장으로 구성된 제시문구를 사용한 두 번째 실험에서 더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통사구조 유지성은 반복구문의 기억된 학습이기보다 다른 문장이 사용되었더라도 그 속에 사용된 동일한 통사구문이 유지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단지 기억에 의한 통사구문의 암기가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속에 통사구문이 내재되는, 즉 습득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통사구조 유지성 실험은 모국어 화자에서 뿐만 아니라 제 2언어 화자의 발화에서도 연구가 이루어 졌다(McDonough, 2006; McDonough & Mackey, 2006, Boon-Joo Park, 2008a, 2008b). McDonough(2006)는 모국어화자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제 2언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호작용을 중시하기에 McDonough(2006)는 Branigan, Pickering와 Cleland (2000)와 Hartsuiker, Pickering과 Veltkamp (2004)에 의해서 사용된 바 있는 모의실험참가자 테크닉(confederate scripting technique)으로 알려져 있는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연구방법은 또 다른 실험참가자임을 가장한 모국어 화자를 모의실험참가자로 두고 게임을 하듯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한 장씩 차례로 들추어가며 그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을 만들어 내는 연구방법이다. 하지만 모의실험참가자는 준비된 제시문(priming sentences)을 포함하고 있는 대본(script)을 읽고 다른 실험 참가자에게는 그림만 제시하여 번갈아 그림을 묘사하게 하는 실험이며 과연 실험 참가자가 모의실험 참가자가 쓴 통사구조를 사용하여 그림묘사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실험방법이다. McDonough(2006)는 실험대상 통사구조로 여격구조를 사용하였다. 모의실험참가자가 그림을 보고 제시하는 문장은 실험대상자에게는 제시문의 역할을 하게 되며, 이 때 모의실험참가자에 의해 제시되는 이중목적어 여격구문 또는 전치사 여격구문을 듣고 실험참가자가 그림을 설명 할 때 두 가지 구조 중 어떤 통사구조가 더 많이 사용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제 2언어 화자들에게서 나온 발화분석에서 통사구조 유지성은 나타나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제 2언어 발화에서 그 효과를 보인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 연구에 참가한 제 2언어 화자들이 다양한 모국어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만하다. 실험참가자들은 한국어, 중국어, 태국어 등 다양한 모국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실험참가자들의 모국어가 일치되지 않고 다양성을 띠었다는 사실은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의 차이가 통사구조 유지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Boon-Joo Park(2008a)은 동일하게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진 제 2언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여격구조를 대상구조로 하여 통사구조 유지성을 살펴본 결과 그 효과가 나타남을 발견했고, 또한 Boon-Joo Park(2008b)의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간에서도 통사구조유지성이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런 통사구조 유지성이 보편적 현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사구조에서의 통사구조 유지효과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타동사구문을 이용하여 문장을 듣고 따라하는데 있어 통사구조 유지성이 영어 모국어화자 뿐 아니라 제 2언어 화자에게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실험참가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L1 집단과 영어를 제 2외국어로 하는 L2집단의 두 집단으로 구성되어있다. L1그룹으로는 한 미국 서부의 주립대학에서 등록한 학부생들 20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남학생 8명과 여학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나이는 18세에서 21세의 분포를 이루었고, 평균 연령은 19.15세였다. L2집단으로는 동 대학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20명의 학생이 실험에 참여했다. 이들은 남학생 18명 여학생 11명으로 이루어져있고 참가자들의 나이는 19세에서 36세의 분포를 이루었고 평균 22.7세였다. L2그룹은 모두 모국어가 한국어이고 영어를 제 2언어로 가지고 있는 화자들이었다. 이들의 영어능력은 중급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이들은 재학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교입학요건인 TOEFL 500(PBT), 173(CBT), 61(IBT)이상에 충족되고, 설문조사(부록참고) 결과, 미국거주기간은 2년에서 6년의 분포 범위로 평균 4.8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지상의 자가진단 언어능력 1-7(1이 ‘매우못함’을 의미하고 7이 ‘아주 잘함’을 의미함)의 스케일 중 3에서 6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은 3.8을 나타내었다.

2. 실험자료 및 도구

실험자료는 크게 연습항목(문장과 그림), 실험대상항목¹(문장), 실험대상 그림, 삽입항목(문장과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습항목으로는 7개의 문장과 7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실험 항목에 사용될 통사구조와 실험대상 그림과 중복되지 않게 구성되었다. 실험대상 항목은 10개의 타동사구문으로 서로 능동태와 수동태가 엇갈리게 구성된 두 세트(능동태 문장 5개와 수동태문장 5개)가 있다. 그 예시는 아래 표 1에 나타나있다.

실험대상 그림은 10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동사를 유도하는 그림이며, 능동태 또는 수동태로 묘사될 수 있는 그림이다. 각 그림에 포함된 이벤트는 주체(agent), 행동(action), 그리고 객체(patient)로 이루어져 있다. 그 예시는 아래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¹ 실험대상 통사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험대상 그림묘사 전에 주어지는 자극 문장들을 일컬으며, 본 논문에서 실험대상 문장 또는 프라임문장(prime sentences) 으로 번갈아 지칭된다.

표1

실험대상 문장의 예

실험대상 문장통사구조	문장의 예
타동사	
능동태	A policeman chased the burglar.
수동태	The burglar was chased by a policeman.


실험대상 그림	유도 문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 ball hit a lady. (능동태) 또는, 2. A lady was hit by a ball. (수동태)

그림 1. 실험대상 그림의 예.

부가적으로, 20개의 문장과 20개의 그림이 삽입 항목으로 첨가되어서, 실험 대상 통사구조가 실험참가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의 실험 대상 문장들 사이사이에 삽입문장이 제시되었다. 삽입항목에는 연습항목으로 사용했던 7개 문장과 7개의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물론 그 문장이 나 그림들이 실험과정 이전에 나타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인식단계 (recognition test)에서 'YES'의 대답을 유도하는 항목으로 쓰이게 된다.

모든 문장들은 영어모국어화자의 목소리를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해서 음성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해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삽입되었다. 그리고 슬라이드 재생 시 실험 참여자가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을 하여 재생될 수 있게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그림은 클립아트 형식의 약간 채색된 단순화된 그림이다.

3. 실험과정

실험은 방음장치가 되어 있고 컴퓨터와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는 실험부스에서 한 사람씩 행해졌다. 실험참가자는 간단히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험에 임한다. 실험과정 중에서 주된 과업으로는 문장을 듣고 따라 하기, 그림묘사하기, 그리고 문장과 그림에 대한 인지테스트가 있다. 먼저 문장 듣고 따라 하기에서는 컴퓨터 마우스로 슬라이드 상에서 녹음된 문장이 삽입되어 있는 소리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문장을 들을 수 있다. 혹시

문장을 따라할 만큼 제대로 못 들었을 경우 두 번까지 반복해서 클릭해서 들을 수 있다. 두 번까지 성공하지 못했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문장 따라하는 것은 가능하면 한번만 하도록 제한하였다. 다음은 인식테스트 항목이 나오는데 컴퓨터 모니터 상에 ‘Has this sentence been presented before?’란 문장이 화면이 제시되면 ‘YES’ 나 “NO”로 대답을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그림이 제시되면 그림에 나온 이벤트를 문법적인 문장 하나로 묘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시 그림이 이미 제시된 그림인지 아닌지에 대해 인지테스트가 주어진다. 피험자는 이런 반복과정을 통해 일곱 개의 연습항목을 거치고 난 후 실험대상 항목을 접하게 된다. 이 실험과정은 실험자가 차후에 전사하기위해서 전 과정 녹음되었다.

4. 데이터분석

연구자가 녹음된 문장 듣고 따라한 부분과 그림묘사부분을 전사하여 실험대상문장이 올바르게 반복 되었는지, 그리고 그림묘사에 어떤 문장구조가 사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험대상 그림묘사에 사용된 문장들은 ‘능동태’, ‘수동태’, ‘기타’로 분류되었다. 그 예는 다음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 (4) a. A ball hit a lady (능동태)
 b. A lady was hit by a ball (수동태)
 c. A lady is standing alone (기타)

예 (4)에서처럼 문장이 주어자리에 주체(agent)를, 동사에 이어, 목적어자리에 객체(patient)를 포함하면 능동태(AC)로 분류하고, 주어자리에 객체(patient), 동사 자리에 be 동사 + 과거분사(past participle), 그리고 by-전치사구(by-phrase)가 따라 나오면 수동태(PA)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 미완성문장이나 자동사 구문, 명사구들은 기타(OT) 로 분류하였다.

III. 연구결과

궁극적인 연구결과 분석은 피실험자가 두 구조의 실험대상 문장(능동태 또는 수동태)을 듣고 따라한 후 그림묘사를 했을 때 실험대상문장에 쓰여진 통사구조가 그림묘사에서도 다시 쓰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전체발화에서 제시문과 같은 통사구조를 사용한 발화의 평균 비율값과

제시문과 다른 통사구조를 사용한 발화의 평균 비율값의 차이는 통사구조유지효과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통계적 유의미성검증은 SPSS 14를 이용해 GLM(General Linear Model)의 반복측정과정을 적용하였다. 영어 모국어 화자집단과 영어 제 2 언어화자 집단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발화된 통사구조의 비율을 계산해 평균값을 구한 뒤, 제시문장구조에 따른 실험대상 통사구조(AC, PA)의 발화의 평균수치의 차를 계산하여 $p=.05$ 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1. 영어 모국어 화자의 발화

타동사구문의 실험대상 문장을 듣고 따라하고 그림묘사를 위해 문장을 생성하는 데 있어 영어 모국어화자(L1)의 문장발화의 경향은 다음 표 2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표 2

영어 모국어발화에 나타난 통사구조유지효과

L1 (N=20)	그림묘사를 위한 발화문장구조		
	능동태	수동태	기타
제시문장 통사구조	M (SD)	M (SD)	M (SD)
능동태	96% (8.2)	0% (0)	4% (8.2)
수동태	65% (24.17)	33%(25.36)	2%(6.15)
차이(통사구조유지효과)	+31%*	+33%*	

* $p<.05$

표 2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능동태가 제시문장과는 상관없이 아주 선호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능동태 문장발화에 있어서 듣고 따라 하기의 제시문장이 능동태일 때 그 문장을 듣고 그림을 묘사할 때는 96%로 나타났다. 반면 그림묘사에 앞서 수동태구문이 제시되었을 때는 그 능동태발화의 수가 줄고 수동태발화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제시문장이 수동태일 때 그림묘사에 능동태를 사용한 발화가 65%로 31%차이난다. 이는 능동태구문의 통사구조 유지성의 크기가 31%가 된다. 이 크기는 반복측정 통계 분석에 의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F(1,19)=36.591$, $p<.001$). 또한 수동태문장발화에 있어서도 듣고 따라 하기 제시문장이 능동태 일 때는 수동태문장이 전혀 발화되지 않았는데 반해, 제시문장이 수동태 일 때는 그것이 자극이 되어 33%나 수동태 문장생성비율이 증가하는

통사구조유지효과를 보였다. 이 33%라는 차이는 반복측정통계 분석에 따르면 유의미하다 ($F(1, 19)=33.864, p<.001$). 그 검정 결과는 표 3과 표 4로 제시하였다.

표 3

영어 모국어 화자들 능동태 발화의 반복측정분석결과(source table)

L1(N=20)	SS	df	MS	F	sig
<u>Within-Subjects Effects</u>					
제시구문에 따른 능동구문 발화	.961	1	.961	36.591	.000
(error)	.499	19	.026		
<u>Between-Subjects Effects</u>					
Intercept	25.921	1	25.921	666.44	.000
(error)	.739	19	.39		

표 4

영어 모국어 화자들 수동태 발화의 반복측정분석결과(source table)

Source	SS	df	MS	F	sig
<u>Within-Subjects Effects</u>					
제시구문에 따른 수동구문 발화	1.089	1	1.089	33.864	.000
(error)	.611	19	.032		
<u>Between-Subjects Effects</u>					
Intercept	1.089	1	1.089	666.440	.000
(error)	.611	19	.32		

2. 영어 제 2 언어 화자의 발화

다음으로 영어 제 2언어 화자의 능동태와 수동태의 프라임문장이 주어졌을 때의 그림표사에 사용된 문장구조의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 제 2 화자들도 모국어화자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즉, 능동태가 아주 선호되고 수동태구문이 제시구문으로 그림표사에 앞서 나타났을 때는 그 능동태발화의 수가 감소하고 수동태발화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통사구문별로 살펴보면, 듣고 따라 하기 제시문장이 능동태일 때

영어 제 2언어 화자들은 그림묘사에 전체 발화의 97%를 능동태문장을 써서 그림을 묘사하였다. 이 결과는 모국어화자들의 경향과 비슷하게 영어 제 2언어 화자들도 능동태를 매우 선호함을 보여 준다. 한편, 듣고 따라 하기 제시문장이 수동태일 때는 능동문장을 써서 그림을 묘사하는 경향이 65%로 감소해 그 차이는 32%를 나타내었다. 이 차이는 통사구조유지효과에 해당한다. 반복측정 분석결과 그 효과는 표 6에서와 같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1,19)=29.659, p<.001$).

표 5

제 2 언어 발화에 나타난 통사구조유지효과

L2	N=20	그림묘사를 위한 발화문장구조		
		능동태	수동태	기타
제시문장 통사구조				
	능동태 (AC)	97%	0%	3%
	수동태 (PA)	65%	32%	3%
	차이(통사구조유지효과)	+32%*	+32%*	

표 6

영어 제 2언어 화자들 능동태 발화의 반복측정분석결과(source table)

	SS	df	MS	F	sig
<u>Within-Subjects Effects</u>					
제시구문에 따른 능동구문 발화	1.024	1	1.024	29.659	.000
(error)	.656	19	.35		
<u>Between-Subjects Effects</u>					
Intercept	26.244	1	26.244	696.419	.000
(error)	.716	19	.038		

수동태 문장이 제시문장으로 주어졌을 때를 살펴보면, 영어 모국어화자의 경우와 비슷하게도, 능동태문장이 제시문장으로 주어질 때는 전혀 수동태문장이 그림묘사를 위한 발화에 사용되지 않다가, 수동태문장이 제시될 때는 그림묘사를 위한 발화에 수동태문장이 사용된 비율이 32%나 늘어난 경향을 볼 수 있다. 이 통사구조유지효과 크기에 해당하는 이 크기는 아래 표 7에서와 같이 반복측정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였다

(F(1, 19)=33. 778, p<.001).

표 7

영어 제 2언어 화자들 수동태 발화의 반복측정분석결과(source table)

	SS	df	MS	F	sig
<u>Within-Subjects Effects</u>					
제시구문에 따른 수동구문 발화	1.024	1	1.024	33.778	.000
(error)	.576	19	.30		
<u>Between-Subjects Effects</u>					
Intercept	1.024	1	1.024	33.778	.000
(error)	.576	19	.03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타동사구문 발화에 있어서 제시문장에서 사용된 능동구문 또는 수동구문의 통사구조가 바로 이어지는 그림묘사에 사용된 발화에서 유지되어 확연하게 통사구조 유지성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목표로 제시되었던 영어 모국어 화자와 영어 제 2언어 화자의 통사구조유지 효과에 관련해서, 먼저 영어 모국어 화자의 통사구조유지효과는 Bock(1986)의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 주었다. 영어 제 2언어 화자의 발화분석의 결과는 괄목할 만하다. 영어 제 2언어 화자들에게서도 타동사(능동태와 수동태)구문에 있어 통사구조유지 현상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그 효과의 크기는 영어 모국어 화자들에게 나타난 현상과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의 차이나 격조사의 유무의 차이 같은 기술적 통사구조의 차이는 통사구조유지 현상에 그다지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어순이나 격조사의 유무 등 기술적인 통사적 특징들의 상이성에는 상관없이 문장 듣고 따라 하기 등의 언어 생성과정의 일환이라 볼 수 있는 발화단계 이전에 입력된 문장의 통사구조가 언어생성에 영향을 미쳐 그 통사구조가 유지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즉 통사구조의 전달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결과가 영어교수법에 있어 문법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두 언어(모국어와 제 2언어)사이에 기술적 통사특성이 다른 면이 있다하더라도

비명시적(implicit) 문법습득 또는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llis(1994)는 명시적 학습(explicit learning)이 의식적인(conscious) 학습과정을 요구하는 반면, 비명시적 학습은 복잡한 문법구조를 자연적이고, 단순하고,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몇몇 학자들은 통사구조 유지성을 비명시적 학습(implicit learning)의 한 작용기제로 간주해왔다 (Bock & Griffin, 2000; Branigan, 2007). 특히 Savage 등(2006)은 통사구조유지효과는 잠재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던 지식의 전이적 활성화(transit activation of already-existing static knowledge)를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통사구조를 명시적으로 모국어의 통사구조에 대비시켜 문법구조를 따로 분석해서 학습하거나 또는 학생들에게 학습시키지 않더라도, 문장의 반복적인 노출이나,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서도 내재적으로 학습 또는 습득된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는, 영어문법교육현장에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도구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장황한 문법 설명 보다는 여러 예문 제시, 여러 예문을 활용한 그림묘사 훈련, 또는 목표로 하는 문법구조를 활용한 그림묘사하기 게임을 통한 대화구성 등 여러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영어문법에 나오는 통사구문을 내재화시켜 습득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개인적 학습전략으로서 장복명(2004)이 언급한 다양한 의사소통전략과 더불어 상대방의 문법구조를 그대로 도입하여 의사소통을 이어가는 하나의 전략으로도 활용하거나, 학습자마다 다르지만 기억력이 영어 학습능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듯이 (맹은경, 2002) 통사구조유지성도 문법학습능력의 잠재성 척도에 긍정적으로 기여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서 여러 언어에서 또는 여러 언어의 제 2언어 화자들의 발화에서 좀 더 다양한 통사구조에 대한 통사구조유지경향을 밝힌다면 통사구조 유지성의 보편적인 현상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영어교육 현장에서도 더욱더 문법구조의 내재화 또는 습득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맹은경. (2002). 기억력과 영어 학습과의 관계. *현대영어교육*, 3(1), 55-80.
 장복명. (2004). 비원어민 영어 화자의 의사소통 전략 분석. *현대영어교육*, 5(2), 173-195.

- Bock, J. K. (1986). Syntactic persistence in language production. *Cognitive Psychology*, 18, 355-387.
- Bock, J. K., & Griffin, Z. M. (2000). The persistence of structural priming: Transient activation or implicit learn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29, 177-192.
- Bock, J. K., & Levelt, W. J. (1994). Language production: Grammatical encoding. In M. A. Gernsbacher (Ed.), *Handbook of psycholinguistics* (pp. 945-984).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ranigan, H. P. (2007) Syntactic priming, *Language and Linguistic Compass*, 1, 1-16.
- Branigan, H. P., Pickering, M. J., Liversedge, S. P., Stewart, A. J., & Urbach, T. P. (1995) Syntactic priming: Investigating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language,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24, 489-506.
- Branigan, H. P., Pickering, M. J., & Cleland, A. A. (2000). Syntactic co-ordination in dialogue. *Cognition*, 75, 13-25.
- Ellis, N. (1994). Introduction: Implicit and explicit language learning. In N. C. Ellis (Ed.), *Implicit and explicit language learning* (pp. 1-31).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Garrett, M. F. (1980) Levels of processing in sentence production. In B. Butterworth (Ed.), *Language production, Vol. 1* (pp. 177-230). Orlando: Academic Press.
- Hartsuiker, R. J., & Kolk, H. H. J. (1998a). Syntactic facilitation in agrammatic sentence production. *Brain and Language*, 62, 221-254.
- Hartsuiker, R. J., & Kolk, H. H. J. (1998b). Syntactic persistence in Dutch. *Language & Speech*, 41, 143-184.
- Harsuiker, R. J., Pickering, M. J., & Veltkamp, E. (2004). Is syntax separate or shared between languages?: Cross-linguistic syntactic priming in Spanish-English bilinguals, *Psychological Science*, 15(6), 409-414.
- Huttenlocher, J., Vasilyeva, M., & Shimpi, P. (2004). Syntactic priming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0, 182-195.
- Levelt, W. J. M. & Kelter, S. (1982). Surface form and memory in question answering, *Cognitive Psychology*, 14, 78-106.
- McDonough, K. (2006). Interaction and syntactic priming: English L2 speakers' production of dative construction, *SSLA*, 28, 179-207.
- McDonough, K. & Mackey, A. (2006). Responses to recasts: Repetitions, primed production, and linguistic development. *Language Learning*, 56(4), 693-720.

- Norman, D. A. (1981). Categorization of action slips. *Psycholinguistical Review*, 88, 1-15.
- Park, Boon-Joo. (2007). *Syntactic persistence within and across languages in English and Korean L1 and L2 speak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 Park, Boon-Joo. (2008a). Structure persistence in L1 and L2 production of English dative structure,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46, 127-143.
- Park, Boon-Joo. (2008b). Syntactic priming effect across English and Korean in transitive utteranc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4), 247-265.
- Pickering, M. J., & Branigan, H. P. (1998). The representation of verbs: Evidence from syntactic priming in language product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9, 633-651.
- Pickering, M. J., Branigan, H. P., & McLean, J. F. (2002). Constituent structure is formulated in one stage.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6, 586-605.
- Savage, C. Leiven, E., Theakton, A. & Tomasello, M. (2003). Testing the abstractness of children's linguistics representation: Lexical and structural priming of syntactic constructions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Science*, 6, 557-567.
- Savage, C., Lieven, E., Theakton, A. & Tomasello, M.(2006). Structural priming as implicit learning in language acquisition: the persistence of lexical and structural priming in 4-year-olds. *Language Learning and Development*, 2, 27-49.
- Schenkein, J. (1980). A taxonomy for repeating action sequences in natural conversation. In B. Butterworth (Ed.), *Language production, Vol. 1* (pp. 21-47). London: Academic Press.

부록

Questionnaire about Language History and Background

Name : _____ Age: _____ Date: _____

Please rate your language proficiency from 1 (very poor) to 7 (perfect):

First Language: _____

very poor

perfect

1

2

3

4

5

6

7

Second Language: _____

very poor

perfect

1

2

3

4

5

6

7

Where and at what age did you start learning these languages?

First Language: _____

Second Language: _____

박분주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Tel: (053) 950-5120/ H.P.: 010-4132-4869

Email: boonjoop@hotmail.com

Received 31 January 2009

Reviewed 14 February 2009

Revised version received 6 April 2009